

통합된 학회 운영방안



조성표 경북대 교수,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실행위원장

통합연구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오랫동안 함께 학술발표회를 가져왔고, 이것이 정례화 되어 가을마다 두 학회가 기독교학문학회를 번갈아 개최하였다. 예전에는 공동학회를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가졌는데, 두 단체 임원들이 밤새워 토론하면서 두 학회가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반복하였다. 그만큼 두 학회 임원들이 가깝기도 하였지만, 하나로 통합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비로소 5월 16일 통합연구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학회로 출범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 관점에서의 학문연구가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신문기사는 인용해도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성경을 논문에 인용하면 학술논문이 아니라는 오해가 많았다. 이제는 세계관적 관점이 어느 가치론적 접근보다도 탁월함을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신앙과 학문>이 등재 후보지에서 등재지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수한 기독교 학자들로 구성된 두 학회가 통합된다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헌신과 진지한 연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논문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관례이나, 세계관적 연구에서는 아직 에세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관적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나,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진지한 헌신이 절대적이다. 일반 학회는 소규모 신생 학회에서도 회원들의 헌신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합연구학회나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는 회원, 더욱이 임원들의 헌신도가 미약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제 회원들의 학문적, 운영적 헌신을 최고로 발휘하여 새로운 학회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 발전하도록 다짐하여 본다. 바울은 세상의 일도 “주께 하듯 하라” 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연구에서도 정말로 주께 하듯 정성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앙과 학문〉은 종합적인 일반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 하되, 〈통합연구〉는 주요한 이슈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지성과 영성, 학문과 현실을 겸비한 학회로

우리 학회는 학문을 하되, 신앙적 신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회와는 달리 영성적 공동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냉철한 지성으로 학문을 탐구하되, 하나님과, 국가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수준은 높되, 신앙적 인격이 겸비된 모습이 우리의 바람직한 학자상일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이론에 충실하되, 우리 사회와 인류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현재 우리는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와 실천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는 데에 필수적임을 확신한다.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경적 세계관 실현의 사명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부지





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과 학문>은 종합적인 일반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 하되, <통합연구>는 주요한 이슈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통합적이되, 분과가 활성화된 학회로

우리 학회는 학문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특성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한다. 너무 분야가 넓어 응집력이 약한 반면, 너무 분리되어 가는 학문의 흐름 속에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학문만의 통합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까지도 통합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학회에서는 종합 학회의 장점을 살리고 전공분야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 내에 학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분과별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된 별도의 개별 학회가 있는 경우 함께 연합 활동에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학회 활동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의 기독교대학, 관련 학회, 기독교자들과의 유대 강화하여 세계 속의 한국 교회의 위상만큼, 우리 학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는 성경적 관점에서 연구하되, 그렇다고 신앙적 선입관이 학문을 제약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학회의 출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고후 10:5)”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외부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찾아내어 굴복시켜야 할 것이다.